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화하라

전기 조합원 고(故) 조상만 동지가 강제전출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비통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바로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0명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고인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인간적인 짓임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강제전출은 가족과의 생이별이나 장거리 출퇴근, 오랫동안 쌓은 숙련도와 동료와의 관계 파괴,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으로 노동자들을 내몬다.

이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은 무엇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동참 의지가 크다.” 하고 말해 왔다.

고인의 죽음으로 ‘시설, 역, 전기 분야는 이미 순환전보를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낯선 곳으로 쫓겨나는 게 괜찮은 노동자가 있을 리 없다. 시설과 전기, 역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외주화 등과 연결돼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거라는 점을 우려해 왔고, 차량과 운전 직종 파업이 시작되면 동참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사측은 강제전출을 강행하면서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새로운 명분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인력이 남는다는 말은 완전한 헛소리다. 기관사들은 “매일 미할당 다이가가 속출하고 주말이면



삭발로 투쟁을 결의한 기관사 노동자들.

쏟아지는 임시 열차에 사람이 없어 연가도 불허하는데 무슨 인력이 남는다는 것인가”, “사람이 남으면 도대체 왜 한 달에 세네 번 휴일 근무를 시키느냐” 하고 항변한다.

차량 역시, 지난 10년 동안 정비 인력이 2천여 명 줄었다. 그래서 검수 주기를 연장하거나 심지어 생략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고, 노동강도는 대폭 강화됐다.

게다가 사측은 강제전출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려 한다. 언제든 사측에 밍보이면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를 없다. 강제 전출이 현장 통제 수단인 까닭이다.

비열한 이간질

정부와 철도공사는 현장조합원들의 분노와 저항이 매우 크자, 직종, 지역, 지부를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마시키고자 이들 직종의 강제전출 규모를 줄이고 일시 뒤로 미루면서, 시설·역·전기 직종의 강제전출은 대규모 강행했다. 또, 기관사·차량 직종의 이번 강제전출은 서울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기관사들의 지적처럼, 사측의 이간질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지금 당장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강제전출은 곧 모든 지부들에 닥칠 문제다. 지금 단결해서 맞서지 못하면 점차 강제 전출이 확대돼, 나중에 남은 직종과 지부들이 싸우려 할 때는 훨씬 더 고립되고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철도노조의 투쟁력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를 길들이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물류 분리 등 분할

민영화 공격을 앞두고 강제전출을 사회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따라서 강제전출 저지가 앞으로의 세력관계에서 중요하다.

철도노조는 23일 동안의 영웅적 파업으로 정부와 계급 대리전을 펼친 중요한 작업장이다. 지금도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파상 공세를 밀어붙이려 하는데, 이를 위해 철도노조를 본보기로 삼고 이곳부터 꺾어 놓으려 한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이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는 것은 단지 철도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금 투쟁에 나선 여러 지부들은 전국의 철도 조합원들에게 “지역과 직종을 넘어서, 소속을 넘어서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사측에 맞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중앙지도부는 당장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제전출을 확정하자 현장조합원들이 즉각 투쟁에 나섰다.

바로 다음날 아침 서울차량 노동자들이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총회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에는 병점차량 노동자들이 임시열차 정비와 임시검수를 거부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이 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서울기관차지부와 용산기관차지부는 각각 총회를 열어 "단 한 명도 못 보낸다"며 강제전출 시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두 지부의 조합원 두 명이 서울 서부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강제전출 대상이 없는 청량리·부곡기관차지부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전보를 차례차례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바란[다]"며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기관차지부 가운데 지금 강제전출이 확정된 곳이 서울의 두 지부 뿐일지라도 모든 기관차지부들은 단결해 공사의 강제전출 강행에 맞서야 한다.

한 조합원의 말처럼 "인사위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사측은 남은 8명의 기관사들에 대해 강제전출을 확정하는 인사위를 곧 추가로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3개월 뒤 대규모 강제전출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 기관사들은 "단결의 힘으로 강제전출의 벽을 넘자"는 서울·용산기관차지부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열리는 전국운전지부장회의는 서울지역 기관차지



부들의 파업 결의를 받아 안아 파업에 함께 돌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단결

파업을 결의한 현장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용산기관차지부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도노조 중앙정의대책위원장의 총파업 명령 뿐이다" 하고 밝혔다.

가장 앞장서 작업거부 투쟁에 나섰



던 서울차량지부는 노조위원장이 차량 지명파업 승인을 약속해 작업거부를 잠시 중단하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 작업거부에 들어가려던 수색차량지부와 구로차량지부 등 서울과 수도

권의 여러 차량지부들도 마찬가지다.

중앙지도부는 현장조합원들의 투지와 열망을 받아 안아 지금 당장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모든 직종의 강제전출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직종이 함께 단결해 싸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사측의 각개격파 전략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사측은 오늘 강제전출 명단을 발표하고 10일에는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현장조합원들은 사측이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해 왔다. 그래야 사측의 갈라치기에 제대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오늘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발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파업에 돌입해 발령 전에 강제전출을 철회시켜야 한다.

강제전출 철회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그러나 현장의 투사들은 중앙지도부의 결정을 손 놓고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앙지도부의 동요로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로 현장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앙지도부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사측의 강제전출 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노사 합의의 결과를 내놓자, 현장조합원들은 쓰디쓴 감정과 좌절감을 느꼈다.

투쟁을 결의한 지부들은 '단 한 명도 못 보낸다'는 현장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고, 강제전출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 결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 사태를 이끄는 힘은 현장조합원들이 제공해 왔다. 이 힘이 마비되지 않고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쟁을 결의한 지부들은 공동의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투쟁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며 투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지부들의 동참을 설득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투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중앙지도부도 압력을 받고 파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중앙지도부가 파업을 회피하려 할 때 현장조합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지금 이 투쟁의 성패는 현장조합원들의 주동성에 달렸다. 현장 투사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큰 때다.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010-7750-1876(이정원)